

부모 양육행동에서 나타난 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 고찰

김 수 정¹⁾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육학과

본 문헌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연구에 있어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고,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문화를 이해하는 보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문화의 영향을 살펴본 문화인류학 및 비교문화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을 망라하여 선행하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가지의 이론적 틀의 범주—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이론적 틀; 토착문화 심리체계의 이론적 틀;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가 제안되었다. 이들 네 가지의 이론적 틀을 고찰한 결과, 다양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문화와 부모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첫째,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더 이상의 적용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인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화와의 관계를 살필 때에 개개인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안점을 반영한 문화의 이해는 어떻게 특정 그룹 내의 개개인의 부모가 그들 고유의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주요어 : 문화, 부모의 양육행동,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토착문화심리체계,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

1) 교신저자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soojungkim.wwomen@gmail.com)

I. 서론

문화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관하여 살펴볼 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 놓인 부모의 양육행동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Benedict, 1934; Harkness, 2002; Harkness & Super, 1996; Okagaki & Sternberg, 1993). 다시 말해, 특정 문화권 내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 문화에 속해 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지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가치관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반영되고 발현되었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은 특정 문화권 내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과 신념 및 이들 신념의 양육행동으로의 발현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들이 속해있는 문화라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중국계 이민 자녀들의 높은 학업적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민 중국인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Chao, 1994; Li, 2001; Zhang & Carrasquillo, 1992). 그 결과, 유교문화의 영향으

로 인한 배움에의 강조 및 가족 내 상하관계의 질서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들이 중국계 이민 부모와 자녀관계 및 이들 자녀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그들의 문화의 특징임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문화의 이해 방식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의 부모 양육행동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Chao, 1994; Hofstede, 1980; Li,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첫째, 문화를 나라나 지역적인 경계선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문화를 지정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문화를 고정적이고 지역에 국한된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속성을 지닌 문화와 그 영향을 주고받는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나타내어 왔다. 둘째,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개개인들은 공유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형성하며, 그 문화적 가치관을 통해, 다양한 행동을 나타낸다는 점을 간과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양한 접근들을 고찰함에 있어 최근의 문화인류학 및 문화심리학 분야에서 강조한 바대로 개인-중심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중심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D'Andrade와 Strauss(1992), Quinn과 Holland(1987), 그리고 Gjerde(2004)는 공통적으로 특정 문화권 내에 속해있는 개인은 공유되는 문화

적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그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역시, 특정 문화권의 공유되는 문화적 요소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개개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이들 각 개인이 부모로서 취할 행동 및 신념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Gjerde, 2004; Holloway, 2010).

특히, 부모 양육행동에 있어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부모 양육행동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최근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부모 양육을 고찰할 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에,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 연구에 있어 “문화”를 이해하는 보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어떠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2.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 개인 부모 및 자녀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틀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자들의 다양한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문화기술학적 연구들과, 다양한 특정 민족 또는 국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문화의 영향을 부모의 심리학적 기제로 살펴본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을 망라하여 선행하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중에서 각각의 이론적 틀을 대표하는 9편의 논문이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 대상의 연구들에서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적용한 이론적 틀을 다음의 기준들을 근거로 하여 분류하였다. 1) 각각의 이론적 틀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2) 각각의 이론적 틀이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룹 내의 다양성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 각각의 이론적 틀이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렇게 분류된 이론적 틀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이론의 장점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활발하게 있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내 중국인 이민의 꾸준한 증가와 이민 2세 중국인 자녀들의 미국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학업적 성취는 많은 연구

자들로 하여금 미국에 정착한 중국인 부모의 자녀양육의 방식에 주목하게 하였으며, 중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와, 이민자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적 요소,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미국 부모의 자녀양육의 방식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여기에서는 중국 이민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문화를 다룬 이론적인 틀과 경험적인 연구들을 포함하여,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와 부모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문화가 각각의 연구들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관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이론적 틀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이해되어졌는지, 특정 문화 그룹 내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정 문화 그룹 내에서의 개개인의 부모와 문화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각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연구들의 특징들을 근거로 분석 대상의 연구들을 다음의 4가지의 이론적 틀의 범주 -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the dichotomized theoretical framework of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이론적 틀(coexist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토착문화심리체계의 이론적 틀(indigenous cultural beliefs systems);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ecocultural framework) - 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나 인종들에서 각 개인이 자아(selfhood)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분야의 이와 같은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비교적 서양의 산업화된 국가들(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권 국가들)에서 흔히 관찰되며, 집단주의는 동아시아 혹은 남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됨을 보고하였다(Hofstede, 1980;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특히,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의 특징을 규정하는 비교문화 학자들은 중국인들의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과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집단주의의 도드라진 문화적 특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여왔다(Hofstede, 1980;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이민을 증가 및 미국 내에서 중국인 2세 자녀의 학업적인 성취가 두드러짐에 따라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주는 집단으로서 중국인들의 신념과 사고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는 중국인 자녀의 학업 성취에 주요 변수로 예측되면서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과 연관된 중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Liu et al.,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집단주의로 구분되는 중국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개인의 목표보다도 속해있는 그룹(예를 들어 가족이나 회사)의 목표 달성이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Chao & Tseng, 2002). 이에, 연구자들은 중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의 부모에게로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주의 문화적 특징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부모들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우월적인 지위(위치)를 더욱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학교에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도록 양육되어진다(Zhang & Carrasquillo, 1992). 다시 말해 중국인 아동의 내면화된 집단주의적 문화적 특징은 그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준다. 이는 개인주의적 문화적 특징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성취동기와 그 학업수행의 메카니즘과는 정반대로서, 그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기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즉,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에 기초를 둔 선행하는 연구들은 중국인 부모들의 양육행동에 있어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에 관한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구결과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근본적인 제한점이 있다: 즉, 이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한 국가의, 혹은 한 인종의(예를 들어 중국인의) 다양

한 문화적 특성의 면면들을 집단주의 혹은 개인주의 문화라는 광범위한 범주화에 끼워 맞추어 설명하려 하였다(Chao, 1994).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이론적 틀

문화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몇몇 연구자들은 모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놓인 그룹들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동시에 포용하고 있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이들은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들을 함께 포함하는 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Jose, Huntsinger, Huntsinger, & Liaw, 2000; Kagitcibasi, 2005; Suizzo, 2007).

특히, Kagitcibasi(2005)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양 극단의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두 가지의 문화적 특징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룹과 개인에게 있어 공존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하여 Kagitcibasi(2005)는 2차원의 직교 평면의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면서 직교하는 두 개의 차원으로서 agency(autonomy versus heteronomy)와 interpersonal distance(separation versus relatedness)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두 개의 차원, 즉 agency와 interpersonal distance를 바탕으로 Kagitcibasi(2005)는 문화의 특징을 규정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인 틀을 벗어나 특히 문화의 부모의 양육행동에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제 3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심리학적인 상호 의존모델(the psychological interdependence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제 3의 모델은 특히, 개인주의의 특징인 독립성에 대한 강조와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인 상호 관계의 강조를 모두 주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할 때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 심리학적인 상호의존모델은 한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분법적인 이론적인 틀로 집단주의로 구분되었던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고, 이러한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개인의 특성화된 능력의 발달과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집단주의적 문화의 특징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왔던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사회에 자녀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 체계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왔다는 것이다(Kagitcibasi, 2005). Kagitcibasi의 이러한 제 3의 모델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사회에 속해있는 부모들의 문화적 신념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Kagitcibasi, 2005).

Suizzo(2007) 역시 미국에서 4개의 다른 인종의 그룹의 부모들을(Chinese Americans, Mexic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화적 신념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이 공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Suizzo는 앞서

제시된 4개의 그룹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습득했으면 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인종의 그룹의 부모들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아실현을 자녀 양육의 장기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자라며 습득했으면 하는 것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친사회성 및 자비로움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 문화적 특징과 집단주의적 문화적 특징이 부모의 인종과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에 공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Kagitcibasi(2005)나 Suizzo(2007)의 이러한 제안은 특정 나라나 인종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그룹 내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하나의 문화적 특징(즉, 개인주의 아니면 집단주의)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존의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그룹 내에서도 개인 간에 문화적 가치관에 있어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Suizzo(2007)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관에 개인차를 일으키는 주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민 중국인 어머니들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본 Suizzo(2007)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룹 내 개인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목표로서 전통에 대한 추구하고 타인을 향한 자비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Louie(2001)는 특정 그룹 내의 문화적 가치관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의 또 다른 요소로서 구조

적인 요소, 즉, 경제적인 수준, 이민세대인지의 여부, 사회계층 구조에서의 이동 가능성 등에 주목하였다. 질적인 면접 조사 연구를 통하여 Louie(2001)는 중국인 부모들 중 노동자 계급과 중산 계층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부모 행동의 전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이라는 이론적인 틀은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 혹은 신념들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과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이나 신념의 변화를 이끄는 가능한 요인으로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심화 과정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한 Kagitcibasi(2005)의 시도는 한 그룹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뿐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관한 일관된 연구들의 결과는 개개인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신념 또는 가치관이 개인주의 아니면 집단주의와 같은 단일한 차원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는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Turiel(2002)이 문화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 하나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속한 사람들 간에 사회적 계층의 분리와 그로 인한 갈등이 혼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에 관한 주의 깊

은 연구는 특정한 그룹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 또는 신념 체계에 있어 개인 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토착문화심리체계의 이론적 틀

토착문화심리의 이론적 틀은, 특히, 이민 중국인 부모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며, 또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가에 관한 이해를 위해 고유의 토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통해 이들 부모의 문화적 신념 체계가 매우 다양한 면면들로 구성되어짐을 발견함에 따라(Chao, 1994), 토착문화심리의 이론적 틀을 통해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Chao, 1994, 1996, 2000; Li, 2001, 2002).

대표적인 이민 중국인 부모들의 토착문화심리에 관한 연구로, Chao가 진행해 오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Chao(1994)는 이민 중국인 부모들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 및 신념에 있어 토착문화심리의 영향을 고려해야함을 역설하며, (이민)중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대표적인 토착문화심리의 구성개념으로서 유교문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教訓(chiao shun)과 管(guan)을 제안하였다. 教訓(chiao shun)과 管(guan)은 부모가 다정하고 따뜻한 양육을 하지만, 자녀가 사회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행동을 지켜나가며 자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며 관리하는 중국인 부모의 특유의 부모양

육행동을 의미하는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Chao(1994)는 教訓(chiao shun)과 管(guan)이라는 구성개념을 포함하는 중국인 부모의 양육행동방식은 강압적이거나 통제하는 행동으로 점철되는 권위적인 부모유형으로 국한되어 정의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教訓(chiao shun)과 管(guan)이라는 중국의 토착문화심리의 구성개념에 대한 고려는 중국의 부모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개념들은 “이민 중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여준다. Chao의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의 결과들은(이민 중국인)부모들에게 공유되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관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집단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독특하고 토착적인 맥락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형성되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성격의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이론적 틀로서, 토착문화심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Chao 같은 연구자들은, 특히 이민 중국 부모에게 공유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규명함으로써, 어떠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요소가 이민 중국 부모들의 양육행동방식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사조가 이민 중국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그 기저에 이들 부모 그룹이 공유하

는 문화적 가치관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인하여 그룹 내 개인 차이에 관한 설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이들 연구자들은 이민 중국 부모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제안된 토착문화심리의 구성개념들이 개개인의 부모의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며, 어떻게 개개인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

언어학, 심리학, 생태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진보된 이론들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Super와 Harkness(developmental niche, 1986), 그리고 Weisner(eco-cultural niche, 1997)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대안적인 이론적 틀인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eco-cultural framework)”을 제안하였다. 이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있는 개개인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방식에 관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형성된 문화적 가치관이 그들의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Gallimore, Goldenberg, & Weisner, 1993; Harkness & Super, 1996; Parmar, Harkness, & Super, 2008; Super & Harkness, 1986; Weisner, 1997).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은 다음의 세 가지로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겠다. 첫째, 생태-

문화적 이론적 틀의 주요 관심사는 부모와 자녀의 매일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환경(settings)과, 이러한 일상생활의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환경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매일 매일의 일상의 반복되는 개인의 환경(settings)에는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의 문화적 가치관의 요소들이 내재되어있으며, 결국 이러한 일상에서의 개인의 환경이 아동의 매일의 경험들을 결정짓는 주요한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이다(Harkness & Super, 1996; Super & Harkness, 1986; Weisner, 1997). 둘째,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은 개개인의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에 주목한다. 이는 개개 부모는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에 공유되어있는 문화적 가치관들을 선택하고, 자기화하는 심리내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자녀 양육에 관한 “자신만의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Harkness, Super, & Keefe, 1992). 셋째,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에서 문화, 부모의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은 일방적인 방향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의 다양한 요소들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한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매일의 생활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

자녀 모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매일의 생활환경이 형성되어진다고 보았다(Harkness & Super, 1996; Super & Harkness, 1986).

구체적으로, Super와 Harkness(1986)는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 개개인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신념,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점점 경계지역(interface)으로서 developmental niche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developmental niche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developmental niche는 3개의 주요 하위 체계(subsystems)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는데(Super & Harkness, 1986),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매일의 일상의 구성(즉, 자녀가 생활하는 매일의 물리적 사회적 생활환경), (2) 부모의 양육행동(즉,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자녀 양육행동), 그리고 (3) 개개인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체계(즉, ‘parental ethnotheories’라고 명명된 개별 양육자의 신념, 가치관 체계 등을 포괄하는 심리). 이들 세 가지의 하위 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아동의 문화적 맥락의 구조가 형성되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하위 체계로 구성되는 developmental niche를 살펴보는 것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관한 문화적 과정에 있어 개인마다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 잠재적이고 강력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동의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생활의 활동(activities)과 환경(settings)을 연구하는 단위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가족구성원 전체에

표 1.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4가지의 이론적 틀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이론적 틀	도착문화심리체계의 이론적 틀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
대표 연구자	Markus & Kitayama(1991) Triandis(1989) Hofstede(1980)	Kagitcibasi(2005) Suizzo(2007)	Chao(1994) Li(2001)	Super & Harkness(1986) Weisner(1997)
문화를 정의하는 방법	공유되는 가치관, 습관, 상징의 의미 등의 집합체	공유되는 가치관, 습관, 상징의 의미 등의 집합체	공유되는 가치관, 습관, 상징의 의미 등의 집합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및 갈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재형성되어지는 것
그룹 내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법	특정 문화 그룹 내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일한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 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음.	동일한 문화 그룹 내의 구성원들 간에도 사회구조적인 차이 (혹은 차별)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이 나타남을 밝혀내려하고 있음.	특정 문화 그룹 내의 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밝혀내려 하였으나, 이러한 다양하고 도착적인 문화적 특징이 비교적 동일하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음.	특정 문화 그룹 내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특징이 발현되고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밝혀내려 함.
개개인 부모의 역할을 정의하는 방법	개별 부모 보다는 특정 문화 그룹의 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이해함	특정 문화그룹내의 부모들 간의 사회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다양한 문화 형성에 동의하지만, 개별 부모의 문화형성 과정 및 양육행동을 고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개별 부모 보다는 특정 문화 그룹의 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이해함	개개인의 부모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과, 이러한 개개인이 형성한 문화가 개별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함
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가정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함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이질성”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함	각 개인 (부모)가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함
분석의 단위	국가나 민족의 경계가 문화의 경계로 이해되었음	국가나 민족의 경계/ 그러나 같은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이 라도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한 다양성을 염두에 두었음	국가나 민족의 경계/ 특히 한 국가 내라도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경우, 민족 단위에 관심을 둠	개인부모 혹은 개별 가족 단위
이론의 장점	· 특정 문화적 그룹 내에서 두드러지는 문화적 특성을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연구할 수 있었음	·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그룹 내의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음	· 특정 문화적 그룹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도착적이고 고유한 문화적 특징들을 설명 가능케 하였음	· 양육행동 방식의 문화적 영향에 있어 개별 부모의 주체적인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그룹 내의 문화의 다양성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하고, 구성원의 주체적인 역할에 주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연구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이론의 한계점	·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이분법으로 단순화시켜버림 ·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음이 발견되지만 이를 설명할 수 없음	·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이분법으로 단순화시켜버림	·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음이 발견되지만 이를 설명할 수 없음	· 구체적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합의된 논리적 연구방법의 제안이 부족함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Weisner, Gallimore와 Jordan(1988)은 eco-cultural nich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Eco-cultural niche역시 developmental niche처럼 부모와 자녀가 생활하는 매일의 일상적인 물리적 사회적 생활환경(settings)에 동일하게 주목하고 있지만(Gallimore et al., 1993; Reese & Gallimore, 2000),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일상의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activity settings을 주요한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시켰다(Gallimore et al., 1993). Eco-cultural niche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은 매일의 일상을 자녀에게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과 발달을 최적화할 수 있는 activity settings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activity setting들로 구성되는 매일의 일상 생활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eco-cultural niche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적극적인 주체로 이해된다. 매일의 일상에서의 자녀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한다고 여겨지는 activity setting을 적극적으로 지속시키려는 개개의 부모 및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고려는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 아동의 eco-cultural niche에의 문화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에 주요하게 이바지 하고 있다(Gallimore et al., 1993; Reese & Gallimore, 2000).

Weisner(2002)는 개별 아동의 매일의 활동과, 그들의 부모들이 형성한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공유되어있는 문화적 가치관이 밀접하게 위임으로써 형성되는 niche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는,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주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niche를 연구하는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을 적용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부모들이 각각 자신만의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양육행동을 구성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4가지의 이론적 틀을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앞서의 4가지의 이론적 틀 -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the dichotomized theoretical framework of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공존을 강조한 이론적 틀(coexist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토착문화심리체계의 이론적 틀(indigenous cultural beliefs systems);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eco-cultural framework) - 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언을하고자 한다.

1.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 적용의 지양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빈번히 적용되어 왔다. Kagitcibasi(2005)는 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성 개념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었는지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우선 이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매우 단순한 차원으로서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 적용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징의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전 세계 국가들을 이분화 하여 분류하는 데에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이 흥미롭게도 두 그룹간의 경제 성장 정도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이 문화적 특징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 수준이 더 높은 개인주의 문화와 이에 반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사회경제적 개발의 수준에 의해 나타나는 맥락적 특징 또한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특히,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로 문화적 특징을 이분화한 본 이론은 유럽 혹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부모들과 중국 혹은 이민 중국인 부모들의 양육행동과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 및, 이 둘 간의 관계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그룹의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 부모의 양육행동, 그에 따르는 자녀의 학업적인 성취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해 왔다. 그러나 선행하는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이 증명

하였듯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론의 틀의 이론적 한계들은 명확한 듯 보인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관하여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부모들의 양육행동들마저도 개인주의 아니면 집단주의라는 카테고리로 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특히 이민 중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자녀 양육행동에서 발견한 다양한 토착적인 특징들이 집단주의라는 단순화된 분류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었음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Chao, 1994; Padmawidjaja & Chao, 2010). 물론, 이민 중국 부모들에게서 빈번히 관찰되는 부모행동의 특성-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모나 성인을 향한 순종을 강조하거나, 자녀 개인의 목표보다는 가족 및 그룹원 전체의 목표를 우선시하도록 사회화시키는 것 등-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을 통해 훌륭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 양육행동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몇몇 특징들-예를 들어, 教訓(chiao shun)과 管(guan)의 구성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모의 양육가치관 및 양육행동-은 오직 그들의 토착적인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야만 이해되어질 수 있었다(Chao, 1994, 1996, 2000; Li, 2001, 2002; Padmawidjaja & Chao, 2010). 다시 말해, 특정 문화적 맥락 내의 부모들의 공유된 문화적 가치관 및 그들의 양육행동을 개인주의 아니면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들 부모들

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의 토착적인 특성들이 반영된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 및 양육행동의 독특하고 토착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둘째,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의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의 이론적 예상과 달리, 특정 문화적 맥락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공유된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에 관해 살펴본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각각의 그룹의 부모들에게서 집단주의적 문화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모두 관찰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Jose et al., 2000; Suizzo 2007). 이는 곧,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이 특정 문화적 맥락에 속한 부모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및 그들의 실제의 사회화 행동(자녀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주의가 아니면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이고 폐쇄적인 분류화를 적용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문화적 가치관을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특정 문화를 이해하려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특정 문화적 맥락내의 구성원인 각 개개 부모들은(개인들은) 동일한 문화적 가치관의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가정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의 개별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문화적 가치관의 체계를 구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무과하고 있다. Gjerde(2004)는 이러한 오류에 관하여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문화의 세 가지 주요한 속성, 즉, “이질성(heterogeneity), 개별성(individuality), 그리고 주도성(agency)”을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특정한 문화적 그룹에 속해있는 부모들 중에서도, Kagitcibasi(2005)와 Suizzo(2007)가 주장한 것처럼, 각각의 부모들의 사회적인 지위 -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 에 따라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은 다양할 수 있다. 또는, Super와 Harkness(1986), 그리고 Weisner와 동료들(1988)이 제안한 바대로, 동일한 문화그룹의 부모들 가운데에서도, 각 개인이 자신만의 양육가치관 및 신념을 포괄하는 개인의 심리체계, 혹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한 developmental/eco-cultural niche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부모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을 보완하는 개선된 이론적 틀의 적용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인 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의 고려

앞서 논의한 대로, 문화와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과, 토착문화심리체계는

특정 문화적/인종 그룹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동일한 문화적 가치관-예를 들어, 집단주의이거나 개인주의, 혹은 중국의 토착문화적 심리체계-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은 동일하다(homeogenous)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이 두 가지의 이론적 틀을 근거로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문화”라는 용어와 인종 그룹(ethnic group), 혹은 출신국가(national origin) 등을 호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어떠한 단일 그룹도 전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소유하는 구성원들만으로 구성되어있을 수 없으며, 특정 인종 그룹의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도 개별 부모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양육행동 방식에 있어서는 그룹 내에서의 다양성이 존재함이 이론화 되어져 왔으며, 심지어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었다(Gjerde, 2004).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개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Suizzo, Kagitcibasi, 그리고 Louie와 같은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의 역할을 탐구해 왔다. 경험적인 선행 연구들은 특히, 이민 중국인 부모들 가운데,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자녀 양육에 관한 신념에 있어서 개인 차이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요소로서, 어머니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적 구조, 이민 세대 여부, 그리고 사회 계층의 상향이동성의 장벽 등을 보고하고 있다(Louie, 2001; Suizzo, 2007).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특정 문화적 맥락 내에서 개별 부모들의 문화적 가치관 및 자녀 양육행동 방식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성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포함하

여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개별 부모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그들의 자녀양육행동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연구되어질 때, 문화와 부모의 자녀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모의 양육행동에의 문화적 영향력을 살필 때에 개개인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앞서 논의한 대로, 문화와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과, 토착문화심리체계는, 또한, 개개의 부모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관한 공유된 문화적 가치관을 취사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변형하여 자신만의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 및 신념을 포함하는 심리체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Abu-Lughod(1991)가 언급하였듯이, 개개인 부모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가치관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에 옮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항상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Gjerde(2004)는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화와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개개인의 부모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경험하며; 문화적 가치관의 형성 및 부모양육행동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person-centered cultural process of parenting’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생태-문화적 이론적 틀은 개개인의 부모가 그들 자신의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을 포함하는 심리적 체계와 양육행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구성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developmental/eco-cultural niche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문화와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개개의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떻게 개별 부모의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을 포함하는 심리적 체계가 형성되는지; 어떻게 이러한 심리 체계가 자녀의 매일의 일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는지; 또한,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구성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상호작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개별 부모의 문화적 가치관이 자녀의 학습 환경에 발현되며; 어떻게 개별 부모의 문화적 모델이 자녀의 학습과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 고유하게 형성한 자신들의 developmental niche에서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문화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모든 부모들이 공유되는 문화적 가치관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이론적 틀은 개별 부모가 공유된 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 및 그들의 양육행동이 단순한 이분법적인 문화의 분류를 통해 이해되는 연구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및 사회구조적 요소가 개별 부모의 문화형성,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녀의 학습경험 구성 과정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틀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이나 선행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된 분야가 미국에서의 중국이민자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 가운데에 놓여진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들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윤종희, 2007; 임정하 & 정옥분, 2004).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윤종희 (2007).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1), 65-83.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Abu-Lughod, L. (1991). *Writing women's worlds: Bedouin stories*.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Benedict, R. (1934). *Patterns of culture* (Vol. 8). Houghton Mifflin Harcourt.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 Chao, R. K. (1996).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beliefs about the role of parenting in children's school succ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4), 403-423.
- Chao, R. K. (2000). Cultural explanations for the role of parenting in the school success of Asian-American children. In R. D. Taylor, & M. C. Wang (Eds.), *Resilience across contexts* (pp. 333-36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ao, R., & Tseng, V. (2002). Parenting of Asian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 (pp. 59-9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ndrade, R. G., & Strauss, C. (1992).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imore, R., Goldenberg, C. N., & Weisner, T. S. (1993). The social construction and subjective reality of activity settings: Implications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4), 537-559.
- Gjerde, P. F. (2004). Culture, power, and experience: Toward a person-centered cultural psychology. *Human Development*, 47, 138-157.
- Harkness, S. (2002). Culture and social development: Explanations and evidence. In P. Smith, & C. Hart (Ed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60-77).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 Harkness, S., & Super, C. M. (1996). Culture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2 biology and ecology of parenting* (pp. 211-2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kness, S., Super, C. M., & Keefer, C. H. (1992).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 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163-178.
- Hofstede, G. (1980). Motiv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 Do American theories apply abroad?. *Organizational Dynamics*, 9(1), 42-63.
- Holloway, S. D. (2010). *Women and family in contemporary Jap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se, P. E., Huntsinger, C. S., Huntsinger, P. R.,

- & Liaw, F.-R. (2000).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relevant to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6), 677-702.
- Kagitcibasi, C.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Li, J. (2001). Chinese conceptualization of learning. *Ethos*, 29(2), 111-137.
- Li, J. (2002). Learning models in different cultur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6, 45-63.
- Liu, M., Chen, X., Rubin, K. H., Zheng, S., Cui, L., Li, D., . . . Wang, L. (2005). Autonomy- vs. connectedness- oriented parenting behaviours in Chinese and Canadian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489-495.
- Louie, V. (2001). Parents' aspirations and investment: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1.5- and second-generation Chinese American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1(3), 438-47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Padmawidjaja, I. A., & Chao, R. K. (2010). Parental beliefs and their relation to the parental practices of immigrant Chinese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In S. T. Russel, L. J. Crockett, & R. K. Chao (Eds.), *Asian American Parenting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dvancing Responsible Adolescent Development* (pp. 37-60). Springer, New York.
- Parmar, P., Harkness, S., & Super, C. M. (2008). Teacher or playmate? Asian immigrant and Euro-American parents' participation in their young children's daily activiti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2), 163-176.
- Quinn, N., & Holland, D. (1987). Culture and cognition. In D. Hol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pp. 3-4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ese, L., & Gallimore, R. (2000). Immigrant Latinos' cultural model of literacy development: An evolving perspective on home-school discontinuiti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8(2), 103-134.
- Suizzo, M. (2007). Parents' goals and values for children: Dimensions of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cross four U.S. ethnic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4), 506-530.
- Super, C. M., & Harkness, S.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uriel, E. (2002). *The culture of morality: Social development, context, and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ner, T. S. (1997). The ecocultural project of human development: Why ethnography and its findings matter. *Ethos*, 25(2), 177-190.
- Weisner, T. S. (2002). Ecocultural pathways, family values, and parenting. *Parenting*, 2(3), 325-334.
- Weisner, T. S., Gallimore, R., & Jordan, C. (1988). Unpackaging cultural effects on classroom learning: Native Hawaiian peer assistance and child generated activity.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19(4), 327-353.
- Zhang, S. Y., & Carrasquillo, A. L. (1992). *Chinese-American students: A review of literatur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
- 1 차원고접수 : 201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5. 11. 13.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1.

A Literature Review of the Effects of Culture in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in Divergent Cultural Contexts

Kim, Soojung

Dept. of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 this literature review, I reviewed the theoretical approaches that attempt to examine how parenting behaviors relate to shared cultural beliefs or individual parents' cultural models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The proposed categoriza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s was as follows: the dichotomized framework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 indigenous cultural beliefs systems; and the eco-cultural framework. The examination of these four theoretical frameworks made it possible to propose some pathways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arenting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First, the dichotomized parents' cultural models were suggested not to be applied any more. Second,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in examining the cultural process of parenting was suggested, in order to find the variability in parents' cultural models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within a particular cultural context. Las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role of individual parents was proposed. These results would help researchers understand how individual parents construct their own cultural models and parenting behaviors.

Keywords: culture, parenting,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indigenous cultural belief system, eco-cultural framework